

정읍시, 1인당 30만원 민생지원금

내수진작 통한 경기 부양...300억 투입 '지역 상품권' 선불카드 지급 23일~1월 24일 행정복지센터 신청...국별 4개과 배치 조직 개편도

정읍시가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진작을 통해 지역경기를 부양하자는 취지에서 전 시민에게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과 박일 정읍시의회의장은 최근 정읍시정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5년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같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총 3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민 소비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읍사랑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를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11월 30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며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사용기간은 선불카드 수령 후 같은 해 4월30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이학수 시장은 "내수경기 침체 속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령 발표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면서 "지역 사회에 온기가 돌고 막힌 경제를 뚫어 골목상권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면 강하고 긴급한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310억원의 재원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교부세가 아니라 시 추진사업들의 관행적, 낭비적 재정지출을 줄이고 경영상비를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마련한 재원"이라고 덧붙였다.

박일 시의장도 "내수경기 위축에 따른 시민들의 가계부담에 늘고 있다는 점을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며 이견 하나 없이 모두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찬성했다"고 예산 승인과정을 전했다.

한편 이학수 시장은 이날 2025년도 정읍시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도 알렸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

을 통해 현재의 4국, 2직속, 39실·과·소, 260팀 체제를 5국 2직속 39실·과·소, 257팀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다.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국별로 5개 과를 배치해 책임 행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팀장·과장 중심의 행정체계를 국장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관광·체육·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운영과'가 신설되고 기획예산실 내 인구조직팀, 체육진흥과 내 스포츠마케팅팀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이다.

또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감축 정책을 반영해 2025년 기준 정원을 9명 줄여 시의 조직정원을 1244명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조직개편은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 변화이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2025년 정읍시는 더 많은 기회와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하주마을 농협 폐창고, 카페 변신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 선정...일자리 창출 등 기대



남원시가 노년복지 우수사례로 농협 폐창고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마을기업 운영 카페 '노 슈가(NO SUGAR)'가 지난 13일 공식 개소했다. 관계자들이 개소기념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농협 폐창고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마을기업 운영 카페가 문을 열었다.

남원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 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주천면 하주마을 카페 '노 슈가(NO SUGAR)'가 공식 개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농협 폐창고 리모델링하고 주변 관광 준비를 통

해 카페를 조성했다. 카페 운영은 남원시와 하주마을영농조합법인, 남원농협이 업무협약을 통해 하주마을 영농조합법인이 맡는다.

조합법인 이성희 대표는 "농협 폐창고와 같은 유휴시설을 활용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군민 소비 장려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고창군이 내수침체가 국내 경기불황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관내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을 늘려 군민들의 소비진작을 꾀하고 있다.

고창군은 심덕섭 군수와 관내 착한가격업소 업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효관소리공원 체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착한가격업소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심덕섭 군수는 자재값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업주들을 격려하며 군의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착한가격업소 운영 중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착한가격업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 혜택 제공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1일 고창 신재효관소리공원 체험실에서 열린 '고창군 착한가격업소 간담회' 심덕섭 군수(앞 왼쪽 다섯번째)와 이선덕 고창군의회 의원을 비롯한 착한가격업소 관계자들이 친절마인드 향상·유지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군은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검토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새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 10개소에 대한 인증서 교부와 업소당 80만원 상당의 하반기 인센티브 물품이 전달됐다.

또 착한가격업소 관계자들의 친절 마인드 향상

및 유지에 대한 당부와 함께 '친절배지' 부착식 및 관련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 됐다.

고창군은 올 초부터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를 위해 '우리동네 착한가격업소 추천제'를 시행 중이며 52개 지정 업소에 연간 13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창군, 절임배추 브랜드 입지 강화

업체 5곳 포장 패키지 개선 지원...박스 등 디자인 개발

고창군 출연기관인 고창식품연구원은 '절임배추 포장 패키지 개선 및 제작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창군의 대표 농산물인 절임배추를 활용한 '고창 맞춤형 김치소재 6차 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단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역 내 절임배추 생산업체 5곳을 대상으로 포장 패키지 디자인을 개선하고 제작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에 따라 해당 업체의 박스, 속비닐, 박스테이프 등 포장 패키지 구성품의 디자인 개발과 제작

이 이뤄질 예정이다.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는 고창 절임배추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 지역성이 강조된다.

특히 고창식품연구원은 포장 디자인에 지역 특산물의 매력을 부각시키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패키지 제작에 착수했다. 사업 참여업체에는 맞춤형 디자인을 적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창 절임배추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시, 새내기 공무원 '특별 휴가' 신설

일하고 싶은 일터 조성...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공포 예정

남원시가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 계발, 복리 후생 확대 등을 위해 특별 휴가를 신설한다.

최근 공직사회는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인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새내기뿐만 아니라 경력직도 공직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남원시가 인용한 공무원연금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재직 연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20년 8442명, 2021년 9881명, 2022년 1만207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근무하기 좋은 조직 문화 조

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휴가' 3일 신설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양자택일) '기념일 휴가' 1일 신설 ▲자녀 보육 휴가 확대-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변경 등이다.

남원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공직사회가 매력적이고 일하고 싶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남원시, 전북 '숯가꾸기' 평가 최우수

산불예방·공익숲·큰나무가꾸기 등 조림목 육성 기여

남원시가 전북도의 '2024년 숯가꾸기 사업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숯가꾸기 우수사업지 선정을 통해 산림자원 육성 분야의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함과 동시에 기능별 산림관리 역량을 향

상시키고자 평가를 진행했다.

남원시는 평가에서 제거목 및 미래목 선정 적정성과 지난 4월 이뤄진 숯가꾸기 사업 현장토론회의 제시 내용들을 잘 수행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 산불예방 숯가꾸기, 공익숲가꾸기, 큰나무가

꾸기 등 다양한 큰나무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숲의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 조림지 풀베기 및 도로변 덩굴 제거 등을 통해 조림목 육성과 경관 행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산림의 다양한 가치 활용을 위해 '2025년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체계적인 숯가꾸기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산림자원 혜택을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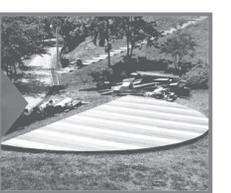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